전기정보공학부

2013-11559 이현규

현음이 감상문

첫 감상문은 서평을 쓰려고 했으나, 함께 현대 음악의 이해 강의를 수강하는 동기생의 권유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피아노 연주회에 가게 되었다. 일요일 저녁 시간에 맞추어 공연을 보려고 하다 보니 그 시간대에 상연되는 두 개의 공연, 비올라 독주회와 피아노 독주회 중 후자인 피아니스트 이윤수 씨의 독주회 공연을 보게 되었다. 학교 근처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한 시간 정도를 걸려, 연주회가 상연되는 예술의 전당에 도착하게 되었다.

예술의 전당에 와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예술의 전당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최근에 알아 공연이 상연되는 홀이 여러 곳 있는 하나의 건물로 예상하였었는데 실제로 가본 그 곳은 거대한 건물 여러 채가 이어지며 마치 하나의 캠퍼스 같은 거대한 장소였다. 예술의 전당 내 피아노 독주회가 열리는 IBK chamber 홀이 있는 건물로 이동해 우선 티켓을 받은 후, 시간이 약간 남아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가 있던 장소는 여러 개의 홀이 있는 거대한 장소였기에 연주회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안에서는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밖에는 여러 개의 분수, 벤치가 놓여 있는 넓은 쉼터가 있었는데, 잔잔한 분위기와 은근하게 들려오는 음악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등 여러가지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예술의 전당의 쉼터다운 분위기를 났다. 잠시동안 둘러보다가 공연 시간이 되어 홀 안으로 들어갔다.

연주회가 상연되는 홀의 크기는 영화관이랑 비슷한 크기 정도인 300석정도였는데, 2층과 피아노가 있는 무대가 있다는 점에서 영화관과는 달랐다. 우리가 앉았던 좌석은 앞에서 5번 째 열, 피아노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대각 방향으로 볼 수 잇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연주회 팜플렛을 읽으며 기다리다가 연주회 시간이 되자 점점 조명이 어두워졌다. 무대만이 비춰지며 정적이 흐른 잠시 후, 피아니스트 이윤주 씨가 등장하였다. 연주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드레스를 입었던 그녀는, 무대 가운데서 인사를 하고, 피아노에 앉아 잠시 기도(?) 같은 것을 한 후 피아노에 두 손을 얹은 후, 연주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곡은 ~ . 첫 번째 곡이 끝나 박수가 이어진 후, 다시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엇다. 두 번째 곡이 끝난 후 휴식 시간이 되었다. 벌써 45분이나 지나잇엇다.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는 다시 무대가 어두워진 후 피아니스트가 다시 들어와 인사를 한 후 세 번째 곡의 연주를 시작하였다. 마지막인 세 번째 곡의 연주가 끝나 그녀는 인사를 한 후 들어갔다가 잠시 뒤에 다시 등장하여 한 곡을 더 연주하겠다고 한 후 그 곡에 대해 설명하였다. ~ 다시 자리에 앉아 잠깐 동안의 피아노 연주를 하였다. 개인적으로 앞의 세 곡보다 마음에 드는 곡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와 함성이 이어진 후 공연이 끝나게 되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처음 느꼈던 것은 음악회를 감상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지친다는 것이었다. 나의 첫 음악회였고, 감상문을 의식하여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상을 하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연주회가 끝난 후 상당히 지치고 피곤하였다. 연주회가 피곤하였던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연주회 같은 것을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노래를 듣는다면 가요나 팝 등, 말하자면, 5분 이하의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듣는 데 무척이나 익숙해져 있다. 그러한 노래에 익숙한 상태에서 20~30분짜리 노래를 들으며, 듣는 내내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상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연주회에서 그렇게 느꼈다. 개인적으로 가요나 팝보다는 뉴에이지(New age)라고도 불리는 장르, 가사가 없는 잔잔한 피아노곡 같은 것을 즐겨 듣기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갔던 연주회에 대하여 편안한 피아노 연주 감상을 예상하였지만, 평소에 이어폰으로 듣는 3분짜리 디지털 형식의 피아노 소리와 20분짜리 실제 피아노 연주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졌다. 커널형 이어폰으로 다른 소리를 차단시키며 귀 안으로 들어오는 노랫소리들만 들어온 상태에서,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날로그의 파동을 20분동안 잡으려 하는 것은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또 이 연주회에서 감상 외적으로 보게 된 것은 연주자의 퍼포먼스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예술가의 피아노 연주를 실제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손으로 하는 연주를 온몸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연주하는 곡 중간중간의 어두운 느낌이 드는 부분에서는 심각한 듯한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작은 음 하나하나를 연주하는데도 상당한 힘이 드는 듯한 느낌이 동작을 통해 표현되었다. 대조적으로, 활발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 부분에서는 정말 즐거운 듯한 표정을 하며 그 느낌이 몸과 손을 통해서도 드러났으며, 특히, 곡의 황홀함이 표현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연주자의 표정은 정말로 황홀함에 빠진 듯하여 상당히 인상깊었다. 또 하나 느낀 것으로는,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주자가 연주 하기 전, 후에 계속 기침을 하고 얼굴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는데, 연주회가 끝난 후, 연주자는 자신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였었다고 말하였다. 분명히, 연주 중간에 기침을 하는 듯한 기색이 가끔씩 보이긴 했지만 연주자의 연주와 감상자들의 감상이 방해된 기색은 없는 듯 하였다. 아마도 기침이 나오는 것을 참으면서 20~30분이나 되는 긴 연주를 한 듯하다. 그 긴 시간 동안 손과 팔을 현란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고역일 듯한데, 좋지 않은 몸상태에서 훌륭한 연주를 했다는 것은 역시 전문가 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연주회에서 들엇던 곡들은 다시 들어보앗는데..

지금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2~4분짜리 피아노곡들을 듣고 잇다.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곡 중 하나인 flower dance라는 노래인데 곡 전체의 잔잔한 느낌에 감미롭고 다채롭게 울려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색이다. 익숙한 곡과 익숙하지 않은 곡의 차이일지도 모르기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피아노곡들이 무대에서 연주되는 것을 감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엇다.